

‘정순’ 김금순 “아름 지닌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화”

디지털 성범죄 당한 중년여성 연기... 로마국제영화제서 여우주연상

“영화 속 정순처럼 아픈 지닌 분들에겐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자’,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난 8일 만난 배우 김금순(51)은 자신이 주연한 영화 ‘정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치해 감독이 연출한 ‘정순’은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중년여성 정순(김금순 분)의 이야기로, 17일 개봉한다.

남편을 여리고 딸 유진(윤금선)과 사는 정순은 지방 중소도시의 식품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한다.

새로 입사한 영수(조현우)와 가까워

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

경찰은 피해가 크지 않다며 가해자와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고 하고, 정순은 고민에 빠진다. 결국 정순은 부끄러움 같은 걸 떨쳐 버리고 뒷박의 행동에 나선다.

“그 장면을 연기할 땐 저도 정말 가해자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정순은 ‘모든 분노를 다 터뜨리겠다, 하마터래 목숨을 잡고 욕이라도 한대도 던지고 나와야겠다’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정순은 자기 행동에 스스로 놀라면서도 속

이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정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공장에선 ‘이모’, 집에선 ‘엄마’로 불리는 개성 없는 존재였던 정순은 그렇게 자기 삶의 주체로 선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새 삶을 사는 정순에게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느낌을 준다.

김금순과 윤금선의 연기 호흡도 돋보인다. 영화 속 두 배우는 실제 모녀처럼 닮아 보이기까지 한다.

“저나 윤금선이 배우나 누군가의 딸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



‘정순’의 주연배우 김금순

(대림아트리뷰전 제공)

남겼다.

김금순은 ‘정순’으로 2022년 제17회

로마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정순’은 심사위원대상까지 거머쥐어 2관왕에 빛났다.

“그렇게 큰 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화제에 참석해놓고 시상식을 하기도 전에 귀국해 버린 탓에 국내에서 수상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찍어 보냈죠.”

올해 1월 개봉한 정기혁 감독의 ‘울산의 날’도 김금순이 주연한 장면이다.

이 영화로 그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았다.

배우 김금순이 오랜 연기로 쌓아온 내공이 드디어 결실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연기에 맛을 들인 김금순은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결혼하면서 10년의 공백기를 보냈다. 그러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2010년쯤부터 영화에 출연했다.

“배우라는 직업에 늘 감사해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지만, 제 생각을 안 바꾼 게 다행이죠. ‘정순’이라는 영화 속에서 윤금선이 배우와 모녀로 살았듯, 배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어떤 연기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김금순은 이렇게 답했다.

“액션 연기죠. 고단수의 무술 연기가 아니라 제 나이대 여성이 할 수 있는 둔탁한 느낌의 액션, 손은 땀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깨무는 그런 액션 있잖아요. 그런 걸해보고 싶어요.” /연합뉴스

음력 3월 2일 천문역원 (062)673-2427
1. 쥐띠: 멀리 있어도 핏줄의 정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구나. 36년생 가족과 뜻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길 수 있겠다. 48년생 말로만 한 약속은 믿기 어려우므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라. 60년생 조그만 것으로 상상의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다. 72년생 당장 몸이 편하고 이익이 따르는 곳으로만 간다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 84년생 손실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고려하라. 96년생 사랑은 쉽게 공상에 젖어 틀레 한다. 그 사랑에 대해 자신만의 환상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행운의 수: 2.5 행운의 색: 주황색

광주매일 TV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파워인터뷰]
대화 향기에 취해 봄기운 만끽 국제청소년연합(YF) 박육수 목사
[뉴스] 이음범 광주광역시 파크골프협회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LIVE]
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경기대회 제2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 650-2010

TV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EBS1
6: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KBS 뉴스광장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 두근 버킷리스트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00 MBC 뉴스투데이 2부
6:00 MBC 뉴스투데이 3부

도로교통공단 TBN 광주교통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김현정 | 진행자: 노희실 | 작가: 박지영
하이브리드 라디오 (16:05~16:55)
프로듀서: 양종영, 나재규 | 진행자: 문예란 | 작가: 한호정

KCTV 광주방송
이런 주 주요 프로그램
충선 특집 후보자에게 듣다 (동남권, 북구권, 북구를)
현장인터뷰 이사람 (강재구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장 편)
맛있는 발골 서울음강 (가성비 보양식 '전통의 맛' 추어탕)